탕카로 만나는 티베트 불교

'탕카의 예술 展'

화정박물관/내년 10월까지

석가 여래도

육도윤회도

보여주는 여성보살을 그린 불화가 벽에 걸린다. 특히 이 여성보살 불화는 동아시아 불화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관객들의 발을 고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년 5월 6일~10월 26일에는 티베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티베트 사자의 서와 정토'를 주제로 세 번째 특별전이 기획된다.

이번 전시물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석가여래도'. 석가모니의 탄생에서 열반까지의 장면을 묘사한 불전도 세트 가운데 하나로 사문출유 장면을 그린 작품이다. 카비라바스투 궁전에서 시녀들을 거느리고 있는 싯다르타 태자를 화면 중앙에 묘사하고 그 주위에는 외출한 싯다르타 태자

석가모니 사문출유 작품 눈길
불교 의식용구 등도 볼거리

가 노인과 병자, 죽은 자, 출가자(出家者)들을 목격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화면 아랫부분 태자가 사캬족 젊은이들과 궁술 경기 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탕카'란 일반적으로 길게 내려뜨린 '축(軸)' 형태로 표구해 걸 수 있는 모양의 티베트 불교회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보통 면(綿)으로 된 바탕에 광물성 안료와 금니(金泥)로 그린다. 탕카에는 불교적 주제 외에도 여신을 숭배했던 티베트의 산악신앙 등이 섞여있어 다른 불교권 나라의 불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성이 표현돼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탕카 전반적인 소개에 그쳤던 이전 전시들과는 달리 이번 특별전에서는 티베트의 의식용구와 불상 등 공예품들도 전시돼 티베트 불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075-0123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강행복 판화展

송광사서 7월 31일까지

판화가 강행복씨가 사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순천 송광사서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열리는 '강행복 판화특별전-나를 찾아 안으로 걷네'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강씨가 지난 2004년부터 <월간 송광사>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송광사 주변의 유적과 풍광을 작품화한 40여점을 선보인다.

김주일 기자

장연순 교수의 '012570 Abaca Indigodye, Stitch'.

인드라망 속에서 현대인 자화상 발견

장연순 교수 4년만에 개인전 열어

우리나라 섬유예술의 권위자 장연순(이화여대 조형예술학부)교수가 4년 만에 펼친 개인전 '늘어난 시간 메트릭스'(5월 2~8일, 서울 인사동 포토하우스)는 급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숨구멍'을 틔워주는 자리였다.

장 교수는 이번 전시에 17점의 작품을 내 놓았다. 그간의 전시에서는 작품명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012570 Abaca Indigodye, Stitch'의 형식이 모든 작품에 붙은 공통 명칭이고 뒤에는 사이즈를 설명했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 모호성, 불분명성이야말로 끊임없이 구체성을 요구받는 현대인들에게 '숨구멍'을 틔워 주는 안락처가 아닐까?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 경계를 부정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금강경>과 <화엄경>의 가르침으로 설명되어진다.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님으로 볼 때 바로 여래를 볼 수 있다(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는 <금강경>의 시각에서 형

'금강경' '화엄경' 가르침 작품으로

상 지어진 모든 것의 비존재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 하나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전시공간은 '말 없는 곳에서 말없는 곳으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구도의 자리였다.

가늘게 뽑아낸 마직을 성글게 직조하여 30회 이상 쪽물을 들인 바탕 소재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적 영성을 갖는다. 사각형을 기본으로 이뤄진 것도 동양적 세계관 그 자체다. 무한을 추구하지만 형상으로서의 유한을 벗어날 수 없는 중생계의 범위가 그 사각형 안에 들어 있다.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가 오히려 선명한 형상을 지어내는 아이러니를 바탕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어나가는 작품들은 낱낱이면서 전체이고 전체면서 다시 낱낱의 의미(一卽多 多卽一)로 놓여 있다. 거기에 빛이라는 장치가 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하면 <화엄경>이 가르치는 '우주가 한 티끌 속에 있음'(一微塵中含十方)을 보게 된다.

시간의 분절체를 형상화 한 듯한 마디마디들은 스스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듯한 이미지를 강하게 발산하며 형상을 지탱하지만 사실 거기에 형상은 없다. 나는 너를 비추고 너는 나를 비추며 끊임없이 연기(緣起)하는 인드라망이 있을 뿐이다. 그 속에서 헐떡거리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발견하는 일, 장 교수가 '침묵'으로 던져 주는 화두다.

임연태 기자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⑩

찬불가 세미나 · 경연 등 활발

1990년대 중반

90년대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면서 95년 10월 31일 불교 TV가 불교계 합창단 단장과 지휘자 및 작곡가를 초청해 '찬불가 보급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작곡가 박범훈 교수, 정부기 교수, 변규백 씨 등과 불교음악계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불교TV 제작국 김종현 편성부장이 참석해 창작찬불가 발전을 위해 불교TV도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대다수 참석자들은 불교방송에서 제작된 창작 찬불가를 통해 불교음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창작찬불가 발표회를 경연대회로 열어 상패와 상금을 준 것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왜냐하면 경연대회는 상대방의 사기를 올려줄 수도 있지만 수상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찬불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조계사합창단이 봉축을 맞아 몇 번 더 개최했다. 그러나 매번 주제발표 내용이 비슷해 세미나 참석률은 저조한 편이었다.

불교음악과 무용의 학술적 연구와 체계적인 교육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94년 국악과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동국대 국악과는 98년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불교음악 논문 · 작곡발표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한 98년 6월에는 불교음악예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동국국악예술단을 경주캠퍼스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창단했다. 이 예술단은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을 두루 섭렵한 90여명의 졸업생들로 구성됐다. 또한 창단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불교관현악단의 태동은 97년 한국불교음악연구회 회장 정부기 교수가 창작찬불동요 '귀의' '내마음 연꽃' '스님생각' 등을 작곡한 뒤 음악회를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됐다.

동국대 국악과 개설로 음악 연구 체계화
3대 종교방송 주최 종교문화예술제 열려

종교문화예술제도 1990년대 들어 빼놓을 수 없는 음악 행사였다. 90년 9월부터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가 주관을 했고 불교 · 평화 · 기독교 방송이 공동 주최해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 예술제는 종교간, 비종교인간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종교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95년에는 원불교가 찬조 출현해 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가는 못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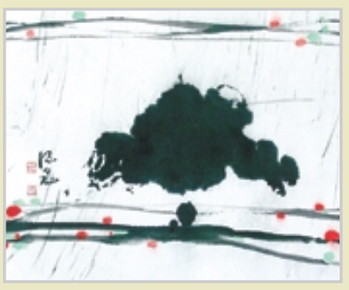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⑬

팔공산 성전암

장인성 시인

암자로 드는 길이 풀잎처럼 가느랗다
바람 한 줌 불어와도 이리저리 뒤척이다
아무래도 방향이 꺾이고 말 것 같다.

길을 가는 나그네도 길을 닮는지
휘파람이 풀잎처럼 향기롭고 푸르다



성전암(聖殿庵)-성철 스님이 외부와의 단절을 위해 철조망을 치고 수행정진했던 도량으로 유명한 파계사 부속암자 그림: 이상배 화백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6. 4 (월 · 화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대웅전완공 초파일대법회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문

부처님의 가피가 가내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원 국제선원의 목조 대웅전(150평)이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대원력과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10여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대웅전에서 초파일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삼원 국제선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7대 조사이시며, 조계종 선사님들 중에서도 그 법이 가장 뛰어나 '지혜제일'이라 불리우신 정전강 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조실로 주석하시고 계십니다.
금년 초파일 대법회에 오시면 명안종사이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생한 육성의 심지법문을 들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정법의 인연을 맺으십시오.
포천의 국제적인 선도량, 삼원국제선원의 초파일법회에 나오셔서 정법을 부촉하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 : 2007년 5월 24일 목요일(음 4월 초파일)
• 시간 : 오전 11:00 ~ 12:00

☎ 031-531-8805 www.zenparadise.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